

광주 방문한 청용화 주한 중국대사

“무안 국제산단 적극 지원하겠다”

인터뷰=박치경 정치부장

“한·중 양국은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증진을 통해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지난 2008년 10월 한국에 부임한 이래 10일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청용화(程永華·55) 주한 중국대사는 “두 나라가 지금까지 다져온 우의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함으로써 전 세계

“한·중 파트너십 발휘 경제 위기 극복해야”

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번영을 구가하자”고 강조했다.

청 대사는 한·중 양국 간 당장 경제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무안기업도시의 무안국제산업단지 개발,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엑스포를 예로 들었다.

그는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는 공동번영을 위한 양국의 중요한 합작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중국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 대사는 “양국 관련기업이 이미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1억 5천만 달러의 자본금을 확보 상태인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국 상무부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로 선정해 추진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 대사는 2년 간격으로 잇따라 열리는 2010 상하이 세계박람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도 한국과 중국이 공동번영을 누리기 위한 중요 협력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세계박람회 협력강화를 약속했으며 다채로운 교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청 대사는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양국은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방문의 해와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공동노력을 통해 양대 박람회의 성공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해 중

국에서 ‘악성’으로 추방받으며 한중교류의 상징이 된 음악가 장윤성 선생의 고향인 광주 방문에 큰 의미를 둔다는 청 대사는 “광주의 산업 및 문화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소중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그는 “중국은 남북이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견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용화 대사는 1992년 한중수교

“상하이·여수 박람회는 양국간 중요 협력대상”

이래 중국이 줄곧 부국장급 대사를 파견한 이래 처음 국장급 한국 대사로 지난해 10월 부임했다.

1954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출신으로 중국 외교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1년 후인 지난 1973년 중국 외교부에 선발돼 일본 유학길에 올라 와코대학교와 소카대학에서 일본사, 일본 문화 등을 배웠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에서만 모두 4차례 공사(2003~2006년)를 역임했으며 지난 2006년 11월부터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로 일해 동남아 정세에도 능통하다.

매사 진지하고 친화적인 성격으로 상하관계가 원만해 중국 외교부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주위의 평가다.

/사전=나명주기자 mjna@

‘긴장감 조성’ 소기 목적 달성

■北 하루만에 개성공단 통행 재개 왜?

국제여론 악화...테러국 재지정 부담도

북한이 한·미 합동의 ‘키 리졸브’ 훈련을 발미로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 통행을 전면 차단한 지 하루만인 10일 통행을 정상화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행 정상화에 걸린 북측의 속사정에 대한 분석은 3가지 정도로 나뉜다. 먼저 예초부터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전면 차단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를 무효화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정경분리’ 기조에 따라 민간의 교류협력, 특히 개성공단 활동만은 보장한다는 기조를 보여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내세워 9일 발표한 군 통신선 차단을 통해 키 리졸브 훈련기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남북 ‘화라인’이 단절된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지만 이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을 마비시킨다는 데까지는 북한 군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가정인 것이다.

북측이 지체없이 단 하루 만에 통행 재개를 결정한 데는 민간인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 악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개성공단의 상징성 및 경제가치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이 예초



남북 군 통신선 차단으로 개성공단 통행이 하루동안 중단됐다 재개된 10일 오후 공단 근로자들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훈련이 끝나는 20일까지 북한 내 우리 국민을 귀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를 실제로 가졌다가 남측 여론의 반발이 거세져 ‘북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을 내려 하루만에 통행을 정상화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는 달리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호하게 표현한 뒤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동안 우리 국민 억류 가능성까지 부각되도록 함으로써 남북간 긴장 분위기를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北 김정운, 내달부터 후계자 수업”

가명으로 최고인민회의 진입 가능성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다음달 초 열리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의 기점으로 셋째 아들 정운(26)에게 후계자 수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9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이달 말에 당과 군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다음달 초 김 위원

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조직개편안을 승인하는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을 구성하고 주요 대내외 정책 목표를 공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후계자로 내정한 정운에게 주요 직책을 부여할 것”이라며 “정운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정운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명으로 당선돼 다음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김정운의 생일인 지난 1월8일 김정운을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내부 통달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 그의 세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운은 스위스 베른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평양으로 귀환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김 일성군사종합대학을 다녔다. /연합뉴스

김정일 후계자 내정, 김정운 프로필



- 출생년도 1984년 평양출생 (당시일 위안징과 세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 둘째 아들)
- 신장/체중 175cm, 90kg (약성)
- 학력
  - 90년대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 입학
  - 2002~2007년 4월 김일성군사종합대학(군사)
- 특이사항
  - 김일 김일성 숭배를 지닌 것으로 알려짐
  - 김 위원장의 성격을 배양할 뿐 아니라 세이훈 총 사령을 독치 함
  -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 전성과 계승을 외치는 정치적 발언을 함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수석합격

합격을 얻어 시험 학원만이 공부원합력의 Know-How를 얻는다!!

중급공무원 이론반 / 9급문제풀이 찍기반

www.hanbit.com

한빛고시학원

www.hanbit.com

지니바스 관광사 SASA

“OPEN 축하 한/정/관/매!”

새마을에서 소박한 휴식과 힐링을 만끽하세요

일출맞으며 힐링을 만끽하는 도해여행이죠

www.sasa.com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www.jejuwongwa.com